

2010 반성폭력주간 3.9~3.12

<각본 깨며 speak-out!!>

주관

제 22대 총여학생회

경계를 훌트리며 차오르는 이야기 <speak-out>

2010 반성폭력주간 3.9~3.12

<각본깨고 speak-out!>

자보전 자료집

제 22대 총여학생회

경계를 훌트리며 차오르는 이야기

<speak-out>

<反성폭력 주간의 의미>

2010년의 봄입니다. 어김없이 새 학기는 시작하였고, 낮선 이들과 낯익은 이들을 학교에서 만나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봄기운은 완연하지 않지만 새 학기라는 이름의 설렘이 학교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나날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反성폭력 주간입니다. 올해에도 어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反성폭력 주간입니다. 자치규약이 제정된 지 그새 10년이 되었지만 '어김없이' 反성폭력을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세대학교 내에서도 여전히 성폭력 사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문 사학'이며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모인 지성의 집단'인 연세대학교라고해서 성폭력의 안전지대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치규약이 제정되기 전에도 성폭력 사건들은 있었으며, 자치규약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성폭력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해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은 지금까지 벌어져왔던 수많은 성폭력 사건을 비가시화 하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결과를 불러왔으며, 심지어 공론화 된 몇몇 사건들을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이들을 피해자와 가해자로 양분하고, 사건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공포를 유발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라면 행동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역할에 걸맞지 않는 이들을 서슴없이 비난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형적 피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올해의 反성폭력 주간의 기조는 <각본을 깨는 反성폭력 운동!>입니다. 흔히들 쉽게 떠올리는 '성폭력 각본'에서 벗어나, 성폭력이라고 명명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한다는 그 왜곡된 기준들을 흔들고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흔히들 성폭력 사건이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 '기준'들이 얼마나 왜곡되고 허술한 것인지를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생존자 개개인의 경험과 그들의 삶의 맥락에서부터 해석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피해생존자의 경험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언어로 사건을 재단하고 분절시켜나가는 행위는 엄연한 2차 가해입니다. 성폭력 각본을 공고히 하는 왜곡된 통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말하지 못하도록 억압해 왔던 권력 앞에서 당당해지기 위해서, 2010년의 反성폭력 주간이 여기 이곳에 존재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성폭력 각본과 이차가해>

연세대학교 내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다루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을 통해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이야기 해 왔다. 광의의 성폭력(Gender-based Violence)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을 둔 차별적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성폭력 사건을 다루고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현재 사회는 가해자 중심적 성폭력 각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폭력 각본이란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란 단어에 부여되어 있는 비일상적, 물리적, 성기중심적, 이성애적(남성가해자-여성피해자) 조건과 상황 등의 이미지를 말한다. 물론 성폭력 각본에 들어맞는 사건 역시 다수 존재하며 충분히 문제제기 되어야 한다. '젊은 이성애자 비장애인 남성'만이 '보편적' 인간으로 상정되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회 속에서 성폭력 각본에 들어맞는 사건이라도 피해생존자의 사건서술과 생존의지와는 상관없이 가해자의 행위 중심으로만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해자 중심주의와 더불어 성폭력 각본만이 성폭력 사건의 모두가 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성폭력 각본이 만연해 있는 곳에서 언어성폭력, 데이트성폭력, 환경적성폭력, 동성간성폭력 등 성폭력 각본에 들어맞지 않는 일상적 성폭력은 쉽게 비가시화 되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 하는 것 역시 어렵다. 또한 여성은 일상 속에서 쉽게 성폭력 피해자가 되고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것이 제한된다. 성폭력 사건의 여성 피해생존자의 경우 지켜줄 만한 피해생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생존자로 이분화 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이 성폭력 사건에 적용되어 2차가해가 벌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2차 가해란 성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이다. 성폭력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은폐시키는 행위, 가해자와의 친분 등을 근거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건을 유포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에 의해 자행되는 2차 가해도 존재하지만 제 3자에 의해 자행되는 2차 가해는 제3자가 그 심각성이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사람들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객관적, 사회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중립자의 위치에 서있다고 생각하며 성폭력 사건의 '진실'여부를 확인하려 들거나 경중을 재면서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논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위 '객관적'이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다. 모든 사건에 일괄 적용될 수 있어야 객관적일 수 있는 이 기준들은 케이스마다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각본으로 구성되기 쉽다. 결국 맥락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말은 2차 가해가 될 뿐이며(혹은 자체로 직접적 가해가 될 뿐이며) 그 속에서 피해생존자가 원하는 사건의 구성이나 앞으로의 삶의 구성은 더욱 어려워진다.

광의의 성폭력 개념은 일반적으로 성폭력 각본 안에서만 해석되는 성폭력 개념을 확장하는데 유용하며 일상화된 성폭력을 가시화하는 의의가 있다. 확장된 성폭력 개념으로 일상적 성폭력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성폭력 각본을 깨고 다양한 성폭력에 대한 상상이 가능 할 것이다. 또한 그럼으로 삭제되거나 왜곡되기 쉬웠으나 말할 언어가 없었던 피해생존자들의 치유의 언어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언어 성폭력은 어쩌다 '당연하고 별거 아닌'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최근 학내에 공론화 되었던 p군 성폭력 사건과 공대 언어 성폭력사건을 대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1년 남짓 일상적으로 존재했던 언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별 것 아닌 것을 괜히 크게 확대해석하는 예민한 여성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진 반면, p군 성폭력 사건은 연세대라는 '명문대'의 이름에 먹칠할 만한 공적인 사건으로 회자되었지요. 이러한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한 것일까요?

흔히 성폭력은 '비정상적인 미친 사람에 의해 힘없고 나약한 사람에게 동의없이 자행 된 이성에 관계에서의 성적인 폭력으로, 신체에 치명적인 흔적을 남긴' 것으로 통용됩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권력관계가 '비정상적인 미친' 사람에게만 작동하지 않듯이 성폭력은 성별권력관계가 작용하는 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라고 '인정' 받으려면 갖춰야 하는 조건들은 일상의 성별권력관계를 반영하고 있을 뿐,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의 일상성을 삭제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생존자를 힘없고 나약한 이미지로 고정해 버림으로써 그/녀의 말하기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험 역시 존재합니다.

언어 성폭력은 특수한 시공간에서 자행되는 비일상적인 '사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관계에서 빈번하게 겪는 경험들을 폭로합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성폭력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자주 겪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는 것,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로 여겨진다는 것 말이지요.

자주 겪고 그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야기되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 언어 성폭력 아닐까요?

언어 성폭력에 대한 이와 같은 반응들은 언어 성폭력을 포함해 전반적인 폭력 자체에 무감각한 우리의 모습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력적인 언행을 농담처럼 쉽게 한다고 해서 그 폭력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폭력에 무뎌지는 것뿐이지요. 부당한 폭력이 아니라 하찮은 경험으로 치부되어 온 삶의 지점들이 당당하고 다양하게 발화될 수 있도록 서로를 변화시키는 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폭력에 무감각한 현 사회에 꼭 필요한 '예민한' 감수성으로 일상적인 언어 성폭력을 문제시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하나하나 살피는 것이 번거로울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언어 성폭력을 비롯해 일상 속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들을 주의 깊게 말하고/듣고 반응하는 것은, 살면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폭력에 대한 기억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일상을 다시 기획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 각본을 무력화 하는 다른 몸 되기>

몸을 바꾼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몸을 지금과는 다른 몸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폭력의 위협, 타인의 치욕치욕한 시선, 몇 번이고 일어나는 자기검열 등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새겨져 있는 억압을 알아내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소리치고 싶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은 생각보다 손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머리는 소리치고 거부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나의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들어온 '조신하라'는 가르침은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길을 막아 버립니다. 몸 바꾸기는 그러한 가능성을 다시 찾아 나가는 작업입니다. 어두운 밤 거리를 걸으며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거나, 누군가가 자신에게 부당한 언사나 폭력적인 행위를 할 때 맞서 받아쳐 주지 못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뒤돌아서 생각해볼수록 분노는 치솟아 오르는데 그때 그 시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서 좌절했던 기억, 혹은 비슷한 상황이 다시 펼쳐졌지만 예전과 별 다를 바 없는 대응밖에 할 수가 없어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 허탈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몸 바꾸기는 그러한 상황이 다시금 닥쳤을 때에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허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나가는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 바꾸기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입니다. 내 몸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가지게 되면, 나의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혼자 걸으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나에게 가해져오는 부당한 행위에 맞서 싸울 수 있고 되값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내가 되는 일, 폭력에 무방비한 상태로 당하지 않는 내가 되는 일은 어렵고 거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몸 바꾸기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재단하려 들고 분절시키려 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은 행동,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일이나 움츠러드는 몸을 짝 펴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일 또한 다른 몸이 되어 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학생이라면 땀 흘리며 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며 몸을 움직이는 활동·달리기 혹은 격렬하게 부딪치는 구기종목이나 각종 무술을 배우거나 신나게 춤을 추는 행동-도 몸을 바꾸어나가는 행동입니다.

성폭력적 시선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나의 몸을 만들어나가는 몸 바꾸기는 적극적인 치유를 모색하는 또 다른 방법이며, 온전한 나 자신을 만나기 위한 신나고 설레는 장입니다.

<성희롱과 성폭력>

‘희롱’이라는 단어가 서로 즐기며 놀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희롱은 강도가 약한 성폭력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개인의 노동권이나 교육권, 학습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해행위의 강도에 따라 성폭력과 성희롱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이 광의의 성폭력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광의의 성폭력 개념은 일상적 성폭력 피해를 가시화하고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젠더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배경으로 많은 성폭력이 발생하지만 협의의 성폭력 개념이나 기존의 젠더불평등한 언어로는 명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광의의 성폭력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광의의 성폭력 개념에서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성적 폭력과 성차별을 좁게 지칭하는 용어가 성희롱이다. 즉 성희롱은 젠더불평등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적 폭력과 성차별에 대항하는 여성의 노동권과 학습권에 대한 적극적 옹호의 관점이다.

성희롱은 크게 조건형 성희롱 환경형 성희롱으로 나뉜다. 조건형 성희롱이라 함은 주로 상사와 부하 간에 고용상의 혜택에 대한 대가로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성적 호의나 서비스의 제공을 조건으로 직업상의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에 관련된 성희롱이다. 환경형 성희롱이란 작업환경을 성적인 괴롭힘을 받을 수 있는 적대적 작업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적대적 작업환경이란 여성의 직업적 전문성보다 성적인 특성이 자극되고, 강조되고, 지지되는 작업환경을 말한다. 환경형 성희롱은 성적(sexual)행위와는 관계없는 성(gender)에 근거한 행위에 의해 서도 발생할 수 있다.

성희롱의 개념은 국가의 경제원인 여성노동력이 사회적인 젠더문제로 인해 침해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여성노동권을 보호하고자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성희롱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생활’로 ‘직장생활’만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고 성희롱이 언급될 때 사람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권력관계로 직장 상사와 부하 사이의 권력관계만 떠올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내에서는 직장 및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성희롱이라는 용어 대신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이용하여 학내 성폭력 사건을 드러내왔다.

최근 “러시아의 한 여 황제는 300명이 넘는 애인이 있었다. 여자가 그 정도면 매춘부나 마찬가지고 남자가 그러면 능력이 있는 거다.” 등의 성차별적 발언으로 J교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교수직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며 동시에 ‘교수는 부도덕하지 않다.’라는 담론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수성폭력 사건은 많은 경우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22대 총여학생회 <Speak-Out>은 강의실에서 일어나는 언어성폭력이 인식조차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위의 사건을 광의의 성폭력으로 명명하고 가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 사건을 성희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J교수의 발언으로 그 수업을 듣는 여학생은 발언을 듣고 불편함을 느끼고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이는 환경적 성희롱에 포함된다. 또한 교수에게 직접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없었던 상황은 학점을 평가하는 교수와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에 의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성희롱으로 명명한다면 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에 의해 침해된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려는 입장이 확고해질 것이다.

교수의 언어성폭력으로 인해 생겨난 위의 사건은 성폭력사건/성희롱사건 두 언어로 모두 지칭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용어의 차이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가해정도의 경중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어떠한 지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생겨난다. ‘성폭력’을 사용할 경우 지금까지 인식되지 못했던 성폭력을 가시화하고 반성폭력 담론을 풍부하게 하려는 지점이 강조되며, ‘성희롱’을 사용할 경우 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가 기반을 두어 발생한 성적인 폭력과 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강조된다.

<“재 레즈래.”>

“재 레즈(비언언)래.”라는 호명은 왜 폭력이 될 수 있는가? “재 레즈래.”와 “재 짜장면 좋아하는대.”라는 호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둘은 모두 타인의 정체성을 까발리는 말이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지만, ‘레즈’가 고집어내는 생활의 풍경은 ‘짜장면’이 드러내는 풍경과는 천양지차다. 짜장면 좋아한다고 놀리지는 않아도 레즈비언이라고 매장시키긴 한다. 레즈비언, 비이성애자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배제의 공기인 <호모포비아>가 이 세상에 묵직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레즈비언 혐오 성폭력 사건을 접했을 때의 금즉함, 이성애 결혼으로만 상상되는 가족에 대한 오싹함, 홍석천이 커밍아웃을 하고 뽀빠이에서 퇴출당하는 현장의 잔인함, 조금씩 조금씩 세상에서 밀려나다가 결국 나는 유령처럼 사라지고 말리라는 불안감... ‘레즈’가 불러들이는 이 모든 저열한 광경이 바로 호모포비아의 증거다.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이의 성/별정체성을 까발리는 행위인 <아웃팅>이 그걸 행한 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폭력이 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다. 비이성애자에게 한없이 적대적인 요지경 세상 가운데에, 정체성이 드러나면 곧 혐오와 폭력의 가능성-현실에 노출되는 비이성애자들 가운데에.

“안녕? 난 이성애자야. 자 이제 너도 내 정체성 아는데, 나도 너 정체성 알아야/알려야 공평한 거 아니니?” 이러한 종류의 요구는 둘이 번갈아 카드를 뒤집는 것처럼 당연한 일 같지만 실상은 아주 부당한 일이다. 카드의 뒷면이 이성애자로 밝혀졌을 때와 비이성애자로 밝혀졌을 때, 각 경우에 뒤따라오는 삶의 풍경이 이미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레즈비언에게 따라붙는 포르노의 이미지, 게이에게 따라붙는 문란한 섹스나 에이즈의 이미지, 트랜스에게 따라붙는 도착이나 변태의 이미지, 나열하기도 싫은 그 이미지를 속에서 각자의 풍부한 역사는 사라지고 레즈/게이/트랜스/얼그러진 뭉텅이만 살아남는다. 맘껏 혐오하고 비웃어도 좋을 풍경들만 살아남아, 다시 애기된다. 이렇게 호모포비아는 귀여한 성/별정체성에게 스스로를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원치 않아도 도마뱀의 꼬리처럼 달려오는 사생활의 이미지는 이미 내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뻗어나가선 다시 나를 퍽 휘갈긴다. 특정 성/별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의미화와 그에 합당한 차별이 이미 코드화 되어있는 상태에서 “재 레즈래.”가 불러들이는 생활의 풍경은 이미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왜 아웃팅은 그리도 쉽게 성사되는가? 왜 아웃팅이 핫한 안주거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성폭력>, 즉 성/별정체성에 기반해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폭력이 되는 어려운가? 요지경 세상에서 회자되는 성폭력이란 참으로 협소하다. 전치 2주나 성기결합 같은 물리적 증거의 유무, 잘 봐줘서 언어 성폭력(흔히 말하기론 성희롱)이라 치더라도 발언 그 자체가 내재한 무자비성의 여부가 바로 <각본>에 등재된 성폭력의 기준들이다. 이러한 각본에서 아웃팅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발언 자체가 아니라 발언이 불러들이는 사회적 효과에 의해 고통받는다는 이유로 성폭력이 아닌 것으로 치부되고 만다. 이렇듯 각본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맥락이 개인에게 어떤 폭력을 야기하는지에 대해선 아무 고민도 없이, 성폭력을 오로지 1대 1의 사건으로 특수화/개별화시킨다. 이렇듯 야멸찬 성폭력 각본을 놓고 살펴봤을 때는, 아웃팅이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 기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성폭력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명의 배경을 복원하자. 앞뒤좌우로부터 동떨어져 존재하는 호명 따윈 없다. 우리는 언어의 뒤편에 숨어있는 배경을 여기 최전방으로 불러들여, 언어와 함께 싸워야 한다. “재 레즈래.”라는 호명이 불러오는 레즈비언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어떠한 역사의 축적으로 가능했는지를 밝혀내자. 우리는 누가 ‘레즈’를 호명함으로써 정상성을 얻을 수 있고 누구는 ‘레즈’로 호명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낙인되는지를, 호명이 생산하는 정상-비정상의 도표가 사실은 얼마나 빈약한 반복인용에만 기대고 있는지를 살펴낼 수 있다. 상세하고 무거운 배경을 등에 지고서 反성폭력을 이야기하자. 반복되어온 부조리를 철회하고, 폭력에는 그에 걸맞은 이름을 붙여주고, 그래서 그들의 비열한 합창을 똑 그치게 해버렸음 좋겠다.

- 레즈 1인

<“그건 데이트성폭력이었다.”>

라고 말하기까지 나에게겐 1년이 필요했다. 그 1년은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나는 틈만 나면 “그게 정말 성폭력 맞아?”라고 물었다. 그런 나에게 “그래 그건 성폭력이었지만 너의 잘못만은 아니야.”라고 말해주기까지 딱 1년이 필요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네 둘이 좋아서 잔 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나?’ 데이트성폭력은 <성폭력각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둘이 서로 아는 사이이고, 게다가 사랑하는 사이이고, 연애하면 당연히 손잡고 뽀뽀도 할테고, 이미 섹스도 했을테니 순결을 잃어서 억울한 것도 아닐텐데 갑자기 왜 성폭력? 거기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성폭력은 권력이 얹히고 쉰 우리네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연애도 사람의 일인지라 맥락에 따라 성폭력은 발생할 수 있으며 오히려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다.’ 사실 많은 이성연애가 성별권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차용하곤 한다. 남성이 목걸이를 사주는 역할이라면 여성은 감동하는 역할을 맡는 광경처럼, 남성이 이끌고 여성은 끌려가는 구도는 이성연애에서 수없이 반복된다. 그것은 성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라, 남성이 요구하면 여성은 ‘안돼요, 돼요, 돼요...’의 어법으로 허락하는 장면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다. 여기에 좀 더 끔찍한 사실. 구준표(꽃보다 남자)가 금잔디를 벽으로 밀어붙여 강제로 키스한다거나, 수면제를 먹여 납치하는 장면이 많은 시청자의 탄식을 자아냈던 것처럼 성별권력이 극대화되어 발현될수록 더 낭만적이고 정열적인 연애로 정의되기 쉽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물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폭력이고 무엇이 사랑인가?’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맥락에 따라 어떤 밤은 추억이 되고 어떤 밤은 트라우마가 된다. 그렇다면 그 맥락이란 당체 무엇인가? 단순히 YES/NO의 선택지를 주고 YES라는 답을 받아내면 그날은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인가? 그럼 나는 그날 YES라고도 NO라고도 하지 않았으니, 내가 잘못했던 것인가? ...끝없는 질문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에야 하게 된 생각은 ‘그렇지 않다’이다. 시간마다, 상황마다 맥락은 무지하게 다르다.

- 어떤 연애는 수동적/소극적/약하고 착한 인물을 연기하는 여성과 능동적/적극적/강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NO”라고 당차게 얘기하긴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합의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어떤 여성은 어릴 적부터 순결하고 정숙한 소녀이길 기대받았으므로 자신에게 어떤 성적욕망이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수 있다. 어떤 여성은 항상 남성의 시선에 의해 보여지고 탐해지는 대상으로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연애관계에서도 남성의 욕망에 충실히 응답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이 “YES”라고 답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인가?

- 어떤 남성은 여자란 원래 조신해보이기 위해 섹스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라마나 포르노로부터 배웠을 수 있다. 어떤 여성은 남자란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생물이며 섹스하지 않으면 연애가 곧 끝날 수 있다고 인터넷으로부터 잡지로부터 배웠을 수 있다. 이때에 여성이 “YES”라고 하지 않았지만 “NO”라고도 말하지 않았으므로 그건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위의 맥락에서 벌어진 일을 이후에 그 여성이 성폭력으로 의미화할 경우, 남성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관계를 가만히 살피면 숨어있던 맥락이 선명히 떠오른다. 그이가 나에게 YES/NO라는 두 가지 문항을 주었다고 해서 곧 나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준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 이미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만든 선택지에 둘 중 하나로만 대답해야 한다면, 게다가 두 개의 대답이 모두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면, 사실은 애초부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역사 위에서, YES라고 말하든 NO라고 말하든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결정권도 주지 않는다. 정작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YES라고 말했는가, NO라고 말했는가 가 아니라 어떠한 관계 속에서 말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미래와 결부되어 답하게 되는가이다. 관계의 맥락은 무척이나 역동적이고, 일초일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살피려면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 살팽이같이 빛나는 눈으로 성폭력각본을 쓱쓱 활꺾어내고, 그 속에 가려져있던 무수한 성폭력경험을 발굴해낼 필요가 있다. 그건 힘든 일이지만 오래 걸려 내가 살아낼 물질을 트는 작업이 될 것이다.